

주일 예배 순서

- 주현 후 제3주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시편 24:1-6 다함께

찬 송(Opening Hymn) 55장 다함께

교독문(Responsive Reading) 2번 다함께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또한, 언제나 저희를 인자와 긍휼로 대하시며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항상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모든 관계가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 나 보다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며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세우신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살아 있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진리와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려 주셔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생각들이 떠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성경봉독(Scripture) 요한1서 1:1-4 인도자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사권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봉 헌(offering) 5장 다함께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Hymn) 490장 다함께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인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늘 주의하시고 몸에 증상이 있으신 분은 코로나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제목>

- 이 땅의 교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 미국에 회개와 부흥을 통한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져 사회 전 분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 선교사님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가운데, 모든 사역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지도록.
- 추위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되는 기관들과 사람들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 아프신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 김희원권사님의 회복 / 박현숙 성도님의 회복(좌골신경통)
 - 허영희 성도님 시어머님의 회복을 위해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

<말씀묵상> 요한1서 1:1-4

- 1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 2 이 생명이 나타내신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바 된 자니라
- 3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 4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1.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은 누구이시며, 이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1-2절, <요한복음 1:1-18절 참조>) 나는 이 생명을 들었고 보았고 만났습니까?
2. 사도요한이 그들이 보고 들은 바를 교회에 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3-4절) 나는 이 사귀를 알고 누리고 있습니까?

■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각 사람과 사귀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사귀를 누릴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피조물이면서도 창조주와 일대일로 대면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귀로 인한 기쁨과 만족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관계가 형성되기까지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소한 것이 되었습니다. 신앙이 종교화되어가면서 많은 활동과 성경공부 프로그램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귀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책에만 나오는 신화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며,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사귀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죄로 인해 죽게 되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분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는 살아계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과 지금 사귀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 사귀를 통해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주님과 견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